

보도시점 2026. 7. 29.(수) 15:00 / 배포 2026. 7. 29.(수) 08:30

‘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

- 아이디어 기획부문 4개팀, AI학습모델부문 3개팀 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 오후 2시 「제2회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모델을 시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의결서를 AI로 읽다”를 주제로, 공정위의 핵심 데이터인 의결서와 법령정보 등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인공지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 의결서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법 위반 판단, 적용 법령 및 조치 결과 등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건구조로 인해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한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결서를 쉽게 검색·분석하고, 국민과 기업의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공모전의 중점을 뒀다.

공모전은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이를 서비스로 실증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공정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4.9부터 6.23까지 약 70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기획부문 30개팀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부문 25개팀이 참가하였고, 출품된 공모작을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 2차(대면)심사를 통해 각 부문 대상 1점, 우수상 5점(아이디어 3, 인공지능 모델 2)을 선정하였다.

수상팀(7개)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또한, 각 부문 대상 수상팀에게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였다.

아이디어 기획부문 대상작은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거래행위와 경영활동에 내재된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기업 대상 AI 기반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인공지능 모델부문 대상작은 국민·기업·정책 담당자가 공정위 의결서의 내용을 자연어로 질문하면 관련 의결서를 검색하고, 검증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지능형 의결서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아이디어 기획 대상 : 호박죽팀 ▲우수상 : 의결서를 읽어주는 밤톨이팀, 세종대왕팀, RAG-LIGHT팀
▲인공지능 모델개발 대상 : 율매팀 ▲우수상 : 리트리버팀, 직장동료들팀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모델을 공정거래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서비스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연구자·개발자가 공정거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공정위가 보유한 전문적인 의결서와 사건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상욱 (044-200-4269)
		담당자	사무관	황태규 (044-200-4275)

I 공모전 수상작

분야	표창	팀명	출품작
아이디어 기획	대상	호박죽	기업 대상 AI 기반 공정거래 위험 진단 서비스
	우수상	의결서 읽어주는 밤톨이	국민·기업·연구자 맞춤형 의결서 AI 검색 서비스
	우수상	세종대왕	의결서 AI 학습 데이터 구축·검수 플랫폼
	우수상	RAG-Light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 위험 알림 서비스
인공지능 모델 개발	대상	울매	근거 기반 지능형 의결서 검색 서비스
	우수상	Retriever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 서비스
	우수상	직장동료들	기업 자율 준수 지원 AI 법률 위험 모니터링 서비스

II 수상작 세부내용

□ 아이디어 기획부문

- (대상 : 호박죽) 공정위 의결서와 법령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거래 행위와 경영활동에 내재한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유사 사례와 위험도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 준수와 준법 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 (우수상 : 의결서 읽어주는 밤톨이) 국민·기업·연구자 등 이용자 유형과 질의 목적에 따라 의결서 검색 결과와 답변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화형 AI 생성형 서비스
- (우수상 : 세종대왕) 의결서 기반 AI 학습 데이터의 생성, 검수, 라벨링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구축·검수 플랫폼

- (우수상 : RAG-LIGHT) 의결서와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위험 신호와 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인공지능 모델개발 부문

- (대상 : 율매) 질문에 대한 위반행위를 AI가 먼저 파악한후 관련 의결서를 검색하고 확인된 근거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
- (우수상 : 리트리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사 법 위반 사례, 처분 결과 및 현행법령을 확인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우수상 : 직장동료들)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 기업 내부 문서를 분석하여 공정거래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과거 제재 사례와 최신 법령을 기반으로 기업별 위험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율 준수 지원 서비스